

伦理视野下的社会发展

——第十七次中韩伦理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汪荣有 孙春晨 主编



北京师范大学出版集团
BEIJING NORMAL UNIVERSITY PUBLISHING GROUP
安徽大学出版社

伦理视野下的社会发展

——第十七次中韩伦理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汪荣有 孙春晨 主编



北京师范大学出版集团
BEIJING NORMAL UNIVERSITY PUBLISHING GROUP
安徽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伦理视野下的社会发展——第十七次中韩伦理学国际学术研讨会
论文集/汪荣有,孙春晨主编.——合肥:安徽大学出版社,2010.8

ISBN 978-7-81110-651-0

I. ①伦… II. ①汪…②孙… III. ①社会伦理—研究 IV. ①B8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0)第 158027 号

伦理视野下的社会发展

——第十七次中韩伦理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汪荣有 孙春晨 主编

出版发行: 北京师范大学出版集团
安徽大学出版社*
(安徽省合肥市肥西路3号 邮编 230039)
www.bnupg.com.cn
www.ahupress.com.cn

印 刷: 合肥华星印务有限责任公司
经 销: 全国新华书店
开 本: 148mm×210mm
印 张: 14
字 数: 360 千字
版 次: 2010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10 年 8 月第 1 次印刷
定 价: 28.00 元

ISBN 978-7-81110-651-0

责任编辑: 谈 菁

装帧设计: 孟献辉

责任印制: 陈 如 韩 琳

版权所有 侵权必究

反盗版、侵权举报电话: 0551-5106311

外埠邮购电话: 0551-5107716

本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印制管理部联系调换。

印制管理部电话: 0551-5106311

代序

社会发展与伦理反思

——“第17次中韩伦理学国际讨论会”综述

由中国伦理学会、江西师范大学政法学院和江西省伦理学会共同主办的“第17次中韩伦理学国际讨论会”于2009年4月19~22日在江西师范大学召开。江西师大党委副书记祝黄河，中国伦理学会顾问、前任会长陈瑛，韩国伦理学会会长朴東俊、金榮泰等参会并致辞，来自中韩两国的130多位代表参加了此次讨论会。讨论会收到与会论文100余篇（本论文集仅择要收录部分论文出版）。学者们围绕“伦理视野下的社会发展”这一主题，对新形势下社会发展中出现的伦理问题，进行了学理上的探讨，针对以下议题展开了较为充分的交流。

社会发展的伦理关切

关于发展的目的。北京建筑工程学院高春花教授以人的存在方式为视角揭示了发展目的的本体论基础，以消除人对物和资本的依赖为内容分析了发展目的的主体性原则，以人的物质幸福和精神幸福的统一为关照解读了发展目的的幸福论原则。她指出，片面强调经济增长便会带来一系列社会问题，当务之急应用人类发展指数代替经济发展指数。

关于可持续发展。江西师范大学王玲玲教授对发展伦理视阈中发展的实然性、应然性和适然性进行反思。她指出发展的实然性是从事实角度对发展轨迹的理论概括；发展的应然性是对发展模式的

理想化思考；发展的适然性乃从实践角度对发展是否具有合理性和科学性进行的评估，强调为人的利益服务是发展的终极价值目标。三者共铸三维立体结构，应协同引领人类发展。

关于发展的价值。湖南科技大学罗建文教授认为，社会发展的价值问题，是关于社会发展所要满足什么样的需求的问题以及为谁而发展和怎样科学合理地发展的问题，这一问题内涵于不同的发展观念中并支配着人类改造自然和改造社会的行为，而社会发展理念从 GDP 崇拜到 GNH 关怀的转变促成了人类社会发展价值目标由崇尚经济发展转向崇尚以人为本，关心人类社会的生存状况和命运，追求人的全面发展和人的幸福，这是人类发展的最终价值目标。

传统伦理的现代转化

关于儒家德性伦理。江西社科院赖功欧研究员认为，钱穆的“人文道德”理念建基于其创发的“人文演进”观，“德性性命”是其重要内核。人文道德的协调功能及“群道”的和谐价值取向，是仁——“相人偶”的逻辑演绎。作为人文演进过程中的“自然心与人文心的接榫”，其关键就在于人文修养与道德教育。

关于和谐伦理。江西师范大学教授吴瑾菁博士认为，和谐伦理是在和谐哲学思维方法论的指导下关于社会交往的协调理论及其规则体系，它是社会主义建设阶段的人际伦理准则，是协调非对抗性的社会伦理关系，是寻求伦理双方的共处和协作的伦理形态。中国传统文化肯定“和而不同”的差异性、提倡“海纳百川”的包容性、强调“抑高举低”的互补性，这可以成为和谐伦理吸取的重要资源。但是，“和谐伦理”始终都是一种现代生活的伦理准则与体系，在吸收传统资源的基础上必须进行现代化的转向，适应当代的社会要求。

关于墨家伦理。吉林师范大学教授薛柏成博士认为，墨学有“平民文化”之称，肯定墨家伦理在政治、经济、军事、科技等领域的渗透与影响，指出当前把所谓“精英文化”与“平民文化”有机对

接，是优化中国文化的内在结构，消融西方文化，为今天经济的发展提供伦理文化借鉴的必要方式之一。

关于传统伦理智慧。江西师范大学副教授曾勇博士以发生在中国政法大学的弑师案为例，分析指出，当下一些高校师生关系在向不正常不健康方向发展，甚至步入危险境地，个中原因主要是学校文化出现了偏差，主要是文化主体之间缺失人文关怀所致。从传统伦理思想中挖掘人生智慧，在学校广泛开展生命教育，是当下重建学校文化的明智之举。

社会发展及其制度伦理诉求

关于法制的伦理诉诸。苏州科技学院教授吕耀怀认为在当代中国社会隐私问题正在逐渐凸显。我国现有法律中虽有关于隐私保护的规定，但仍然不够充分、不够完善。而且，隐私权的法律保护需要有相应伦理辩护的配合和支持。并提出只有在中国的伦理学研究者对隐私权的保护提供了充分的、坚实的伦理根据之后，保护隐私权的法律才可能获得不容置疑的合理性基础，法律对于隐私权的保护才可能臻于完善。

关于社会平等正义。江西师范大学副教授黄芸博士借用罗尔斯的观点，审思 1977 年高招标准，认为“不看出身看成绩”，相对于反右后的“政治挂帅”标准，是向着机会的形式平等迈出了一步；但是，省际悬殊的分数线，又限制了这种平等的范围，造成了省际的机会不平等；此外，不断加大的贫富差距与农村教育资源匮乏，导致了起点的不平等，并严重阻碍着教育机会公正平等的实现。

关于社保的伦理基础。江西师范大学副教授曹清华认为社会保障制度具有深厚的伦理道德基础。由于保障资源的不均等分配，中国社会保障制度背离了其促进社会公平的核心价值目标，导致自身陷入非正义的伦理困境，而发展和完善中国社会保障制度在保证中国社会稳定和经济效益的同时，能够有效推进社会伦理道德的进步。

关于企业伦理。韩国伦理学会总务理事洪容意教授认为中国的企业伦理存在公私不分、腐败不断等问题，尤其是近年出现的山寨文化，对知识产权提出挑战。他表示对山寨产品既不接受质检、又不纳税这一现象不能理解，并认为政府要提高企业水平，使之走向国际化，首先要使企业伦理达到国际化伦理要求。

生态伦理与环境公正

关于环境公正。江西师范大学教授曾建平博士指出，环境公正是指在环境资源的使用和保护上所有主体一律平等，享有同等的权利，负有同等的义务。从共时态与历时态来看，环境公正问题可区分为种际公正、共时态公正和历时态公正三个向度。在共时态上，可细分为国际公正、族际公正、域际公正、群际公正、性别公正等五个方面；而历时态公正主要指称代际公正。环境危机如若不与社会正义联系起来，是不可能得到有效解决的。

关于“地球伦理”。日本伦理研究所国际顾问藤原素子指出“地球伦理”提出的时代背景——近百年的片面发展——，强调“地球伦理”不仅是一种理论，更是一种实践，可以具化为十项主张：植树、爱护绿地、彻底清扫、把垃圾带走、珍惜纸张、节电、节约、节水、不污染水质、回收利用。他再三强调只有地球的安泰，才会有人类的安宁和幸福。

关于自然的价值。河海大学余达淮、张文捷、贾礼伟以鄱阳湖为例，回顾 20 世纪人的活动与鄱阳湖的关系，认为以往对鄱阳湖的改造思想与行为，正是人类信奉人类中心主义的真实写照，但是非人类中心主义为我们今天构建人与鄱阳湖和谐相处的关系提供了启示：鄱阳湖是有生命的个体，人与鄱阳湖的关系是平等的；鄱阳湖的价值并不是建立在它对人类利益的满足上，而在于它的创造性。

韩国伦理学会事务局长金哲镐教授认为朱熹的自然观中关于人类和自然的关系有三种类型：自然起源的气观念，表征着起点的平

等；自然本质的理观念，意味着价值（仁）的平等；自然世界的生命体的级别之差（人类处在最顶端），但这并非说明人类有支配自然的正当性，而是要强调人类对自然的道德责任。这一自然观仍具现代意义。

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下的思想教育与道德建设

关于“八荣八耻”的话语分析。广西工学院李宪伦教授在对“八荣八耻”荣辱观的要义进行话语分析的基础上，从三个方面对社会主义荣辱观体系作为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的伦理基点进行论证分析，并提出了加强现代道德建设必须践行社会主义荣辱观的若干认识与探讨，强调社会主义荣辱观是社会主义基本价值观、是非观、善恶观，是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的四大组成之一和马克思主义中国化的当代伦理学新基点。

关于“集体”的再认识。江西师范大学肖接增副教授认为对集体主义原则中“集体”的科学界定，是正确认识集体主义、自觉践行集体主义的思想基础。他指出，集体是一个社会关系概念，其理论依据是马克思主义真实共同体思想。据此可知，集体是真实的共同体，是以人的自由发展和运动为根本目标的劳动者联合体，而社会主义国家在道德范畴的概况与抽象就是集体。

（执笔：曾勇）

目 录

〔 1 〕 代 序

一、社会发展的伦理问题（国外论文）

- 〔 3 〕 한국의 사회발전을 위한 학교 도덕교육의 방향 / [韩] 김태훈
- 〔19〕 ‘낙태’에 관한 사회윤리합적 접근 / [韩] 이 경 희
- 〔29〕 사이버 불링의 이해와 예방을 위한 교육적 대응 / [韩] 林相秀
- 〔40〕 한용운과 양계초의 근대화 자유이념 / [韩] 金容煥
- 〔51〕 朱熹自然观的现代意义 / [韩] 金哲鎬
- 〔63〕 中國의 企業倫理와 關聯된 主要 問題點 / [韩] 洪容憲
- 〔75〕 社會發展與傳統儒教倫理-關於朝鮮性理學的“四七論辯”
/[韩] 黃俊淵
- 〔85〕 중국 초등학생 정보윤리 감수성 실태 조사 / [韩] 金恒仁
——북경 소재 2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 〔95〕 21 세기 노동윤리의 변화 / [韩] 徐圭善
- 〔106〕 이상적인 디지털 시민 의식 / [韩] 趙日守
- 〔117〕 마르크스의 生態學에 對한 批判的 考察 / [韩] 李範雄
- 〔127〕 Three Ethical Principles of the Reverence of life in A. Schweitzer's
Bioethics / [韩] 邊淳庸
- 〔137〕 地球伦理的理念与实践 / [韩] 藤原素子

二、社会发展的伦理意蕴

- 〔141〕 转型中的伦理变迁 /雷 涛 邓文平
- 〔148〕 道德自律：企业可持续发展的伦理基石 /冯 涛
- 〔156〕 发展目的的伦理向度 /高春花
- 〔163〕 贫困：发展伦理的视点 /韩 玲
- 〔170〕 道德的原则性与灵活性关系探析
——关于康德与孟子伦理学的一个比较 /胡可涛
- 〔178〕 民族主义政治伦理的道德悖论 /靳凤林
- 〔186〕 社会主义荣辱观视野下的现代伦理新基点 /李宪伦 莫旻英
- 〔192〕 发展价值论语境下的发展价值目标 /罗建文
- 〔199〕 自然内在价值论合法性思考 /彭 坚 魏子承
- 〔206〕 发展伦理关于发展三个维度的探究 /王玲玲 左功叶
- 〔213〕 制度公正：和谐社会构建的理念与路径 /邵晓秋
- 〔220〕 从道德理念、社会问题与历史情境的关系看社会构型的两种
基本类型
——兼谈和谐社会的构型问题 /谢中和 黄 鹤
- 〔226〕 对集体主义原则中“集体”的再认识 /肖接增
- 〔233〕 环境公正与社会发展 /曾建平
- 〔243〕 女性伦理问题研究 /张水华

三、社会发展与传统伦理

- 〔253〕从罗尔斯的观点看高考变迁与社会公正 /黄 芸
- 〔259〕略论亚里士多德与孟子的德福观 /蒋九愚 周志明
- 〔266〕钱穆“人文道德”观的建构及其基本内涵 /赖功欧
- 〔277〕儒家道德修养的现代调适功能 /邓文平 雷 涛
- 〔284〕浅谈现行刑法关于“亲属相盗”的规定 /万海峰
- 〔290〕平民文化与当代社会发展
——来自墨家伦理的启示 /薛柏成
- 〔299〕《乡村建设大意》与《南赣乡约》的比较研究 /易燕明 李剑莹
- 〔307〕《周易》经济伦理思想探讨 /张文俊
- 〔315〕传统道德文化现代传承的阻滞及其原因略析 /郑维铭

四、社会发展与应用伦理

- 〔325〕当前中国经济伦理失范的状况及原因分析 /汪荣有
- 〔336〕中国共产党与建国初社会价值观的演变 /王 员
- 〔344〕伦理视角下的中国社会保障制度发展与完善 /曹清华 杨 磊
- 〔351〕行政公正实现的救济机制探究 /方旺春 刘小根
- 〔357〕大学生网络道德调查报告 /江晓萍
- 〔364〕社会发展与公民个人隐私的保护 /吕耀怀
- 〔372〕生态城市建设的环境伦理观念创新 /秦红岭
- 〔380〕现代文明社会发展的公共行政伦理诉求 /邱正文 刘建荣

- 〔387〕 企业伦理与中国企业管理增进问题探讨
——基于道德基准的标杆学习视角 /孙步忠 曾咏梅
- 〔396〕 环境伦理学视野中的科学发展观 /童恒萍
- 〔404〕 道义的力量
——网络何以能反腐败 /王水兴
- 〔409〕 对新时期私营企业道德体系构建的几个问题的思考 /肖华平 陈娇云
- 〔414〕 鄱阳湖生态经济区发展的伦理思考 /袁玲红
- 〔420〕 伦理视域下的高校校园文化建设初探
——从“10·28”弑师案谈起 /曾 勇
- 〔426〕 浅谈实现国际环境主义的对策 /袁学涌

一、

社会发展的伦理问题 (国外论文)

한국의 사회발전을 위한 학교 도덕교육의 방향

一、시민적 덕의 굴대: 상호성 원리 (reciprocity principle)

1. 인류학적 근거

다윈 (C. Darwin) 은 『인류의 유래』 (*the Descent of Man*) 에서 “사회적 본능 -인간의 도덕적 본질의 일차적 원리- 은 능동적인 지성적 힘 (intellect) 과 습관 (habit) 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이르며, 그리고 이것은 도덕성의 토대로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그는 상호성 (reciprocity) 을 도덕성의 초석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의 생각인즉슨, 사람들은 상호성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득을 지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가 말한 상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의 원리에 따른 사회정의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다윈이 상호성 원리를 도덕성의 토대로 강조한 이래, 각 문화에서 집적된 인류학적 자료는 상호성 원리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브라운 (D. E. Brown), 뵘 (C. Boehm), 호벨 (E. A. Hoebel), 레이나 (S. P. Reyna), 살린스 (M. D. Sahlins), 그리고 서비스 (E. R. Service) 와 같은 학자들은 여러 문화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민족지학적 자료 (ethnographic literature)로부터 문화 간 경향과 양식에 관한 일반화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브라운 (D. E. Brown) 은 이를 집약하여 모든 문화에서 상

호성이 도덕성의 핵심 측면을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인류학적 자료는 도덕체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인류학자들은 도덕성 (morality) 혹은 도덕률 (moral code) 과 같은 말보다는 교환관계 (exchange relationships), 상호의무 (reciprocal obligations), 혹은 공유 (sharing) 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예컨대, 킬렌 (M. Killen) 과 드 발 (F. B. M. de Waal) 은 상호성 원리가 교역과 같은 명확한 교환관계나 사적 영역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응분의 복수와 같은 적대적 교환과 관련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그러한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도덕적 원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행위는 또 다른 선한 행위를 받을 가치가 있고,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의 주장을 빌리면, 상호성 원리는 기본적으로 친족 거리감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이타적 행동으로부터 해로운 행동에 이르는 사회적 거리 연속선 (social distance continuum) 을 따라 배열된다. 살린스 (M. D. Sahlins) 는 이를 일반 상호성 (generalized reciprocity), 균형 상호성 (balanced reciprocity), 그리고 적대 상호성 (negative reciprocity) 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상호성은 전형적으로 가까운 친족 간에 나타나는 형태로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쿹 부시맨 (!Kung) 에게서 예증되고 있다.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직접적 상환을 기대하지 않고 제공한다. 균형 상호성은 물질적 교역에서와 같이 직접적이며 균등한 교환을 수반한다. 적대 상호성은 친족이 아닌 사람, 즉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먼 사람들 간에 흔히 나타난다. 절도나 강탈과 같이,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된다. 이 형태의 상호성은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다.

특히, 균형 상호성 원리는 생물학자인 트리버즈 (R. L. Trivers) 가 제시한 상호적 이타주의 (reciprocal altruism) 와 관련이 깊다. 그

는 상호적 이타주의를 “이득이 비용보다 더 커서 시간이 지나면 양측이 순 이득을 즐기는 이타적 행동의 교환”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사냥으로 잡은 커다란 짐승을 보관하는 것은 부패한 고기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고기를 공유하는 것은 미래에 고기 선물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상호성이 상호 의무를 창출해냄으로써 균형에 이르도록 해준다. 유목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이처럼 고기를 공유한다는 인류학적 증거는 매우 많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상호성은 인간의 도덕적 사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왔다. 인간은 선한 행위에는 그에 보답하고, 나쁜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한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좋은 일인 반면에 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 원리는 도덕적 위반을 저지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상호성 원리의 한 측면으로 되갚음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적대적이든 애초의 행위와 대체적으로 동등한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시민 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호성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적 덕이란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이 원리에 입각한 태도 혹은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2. 시민적 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의 특성

여기에서 시민적 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공정, 협동, 배려, 준법성 등의 덕을 발휘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내면적 품성으로 자리 잡은 그러한 구체적인 인격적 특성으로 인해 항구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황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능력에 따라 걸음으로 드러나는 비교적 일관된 태도나 행위를 다만 시민적 덕으로